

LG화학, 중국 100대기업 선정

현지법인 가동 첫해부터 흑자 ... 석유화학 대표기업 위상 강화

LG화학의 중국 현지법인인 LG Dagu와 LG Yongxing이 중국의 2000여개 석유·화학기업 중 200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중국 백강기업(百強企業)으로 선정됐다.

백강기업은 중국석유화학협회와 중국통계국에서 석유·화학기업 중 해당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한 100대기업을 말한다.

LG화학은 중국 현지법인인 LG Dagu와 LG Yongxing이 2003년 각각 2억600만달러와 2억8700만달러의 매출 및 1450만달러와 1620만달러의 경상이익을 달성하는 등 가동 첫해부터 줄곧 흑자를 실현해왔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백강기업에 선정됨으로써 LG화학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화학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원가경쟁력 확보로 중국 1위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계 기업으로는 LG화학 현지법인 2사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합자한 14사가 백강기업에 선정됐다.

<화학저널 2004/03/23>